국내 펀드매니저 현황 및 시사점

□ 최근 수년간 자산운용사의 펀드매니저 수는 600명 안팎으로 정체된 가운데 평균 근무기간은 장기화되는 특징을 보이며 펀드매니저 1인당 운용 펀드 수는 평균 6개로 집계

□ 한편 펀드매니저 1인당 펀드 운용 규모의 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공모펀드 수탁고가 10조원 이상인 자산운용사의 경우 펀드매니저 1인당 운용 펀드 수는 평균보다 많은 9개를 기록

□ 올해 상반기 성과보수형 공모펀드의 도입과 더불어 재간접펀드를 통해 투자상품이 다양해짐에 따라 향후 공모 펀드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펀드매니저의 역량 및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판단

□ **최근 수년간 자산운용사의 펀드매니저 수는 600명 안팎으로 정체된 가운데 평균 근무기간은 장기화되는 특징을 보이며 펀드매니저 1인당 운용 펀드 수는 평균 6개로 집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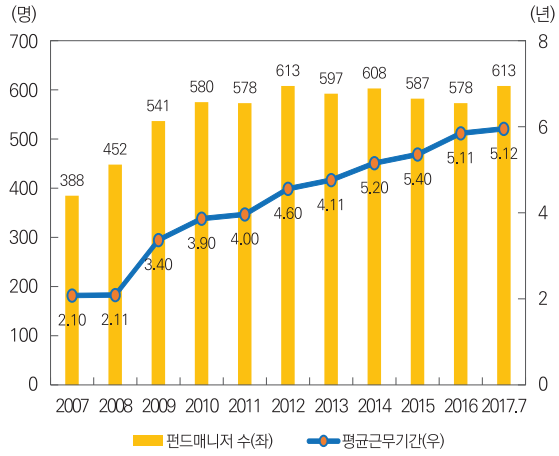
— 2017년 7월 기준 자산운용사의 펀드매니저 수[1]는 613명으로 2012년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600여명 내외를 유지하고 있으며 동기간 평균 근무기간은 5년 12개월로 지난 10년간 평균 근무기간은 2배 이상 늘어남

• 펀드매니저의 평균 근무기간[2]은 2007년 기준 2년 10개월에서 2017년 7월 기준 5년 12개월로 증가하였으며, 펀드매니저의 평균 경력[3] 또한 2007년 기준 4년 4개월에서 2017년 7월 기준 8년 11개월로 증가

— 펀드매니저 1인당 운용 펀드 수는 2008년 기준 11개를 기록한 이후 감소하여 최근 수년간 6개 수준이며, 펀드매니저 1인당 운용 규모는 3,750억원으로 2017년 상반기 소폭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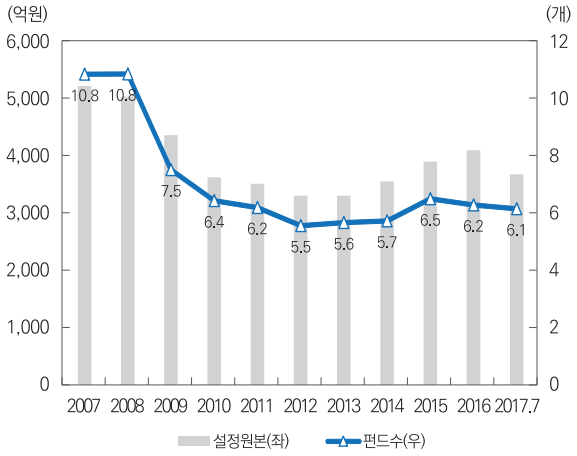
1) 공모펀드를 운용하는 펀드매니저를 포함하며 사모펀드만 운용하는 매니저 및 비운용 매니저는 제외
2) 평균 근무기간은 현재 회사에서 펀드매니저로서 근무한 기간의 합을 해당 회사의 펀드매니저 수로 나누어 산출
3) 평균 경력은 자산운용회사에서 펀드매니저로서 근무한 총기간의 합계를 해당 회사의 펀드매니저 수로 나누어 산출

펀드매니저 현황 추이



주 : 2007~2016년은 12월초 기준
자료: 금융투자협회

펀드매니저 1인당 펀드 수 및 규모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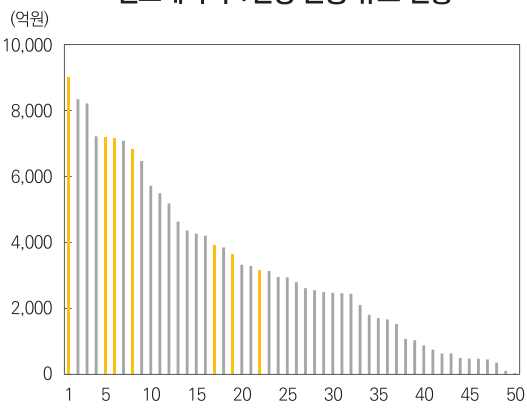
주 : 2007~2016년은 12월초 기준
자료: 금융투자협회

□ **한편 펀드매니저 1인당 펀드 운용 규모의 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공모펀드 수탁고가 10조원 이상인 자산운용사의 경우 펀드매니저 1인당 운용 펀드 수는 평균보다 많은 9개를 기록**

— 2017년 7월 기준 펀드매니저 1인당 펀드 운용 규모는 최대 9,000억원 이상으로 자산운용사마다 운용 규모의 차이가 크게 나타났으며 공모펀드 수탁고가 10조원 이상인 자산운용사 간의 펀드매니저 1인당 운용 규모 편차도 상당한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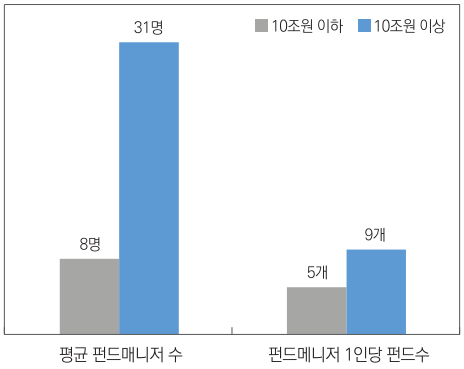
- 공모펀드 수탁고가 10조 이상인 자산운용사의 펀드매니저 1인당 운용 규모는 최대 9,019억원에서 최소 3,158억원으로 집계
- 펀드매니저 1인당 운용 규모는 공모펀드 수탁고가 10조 이상인 자산운용사의 평균이 5,855억원으로 나머지 자산운용사의 평균 3,333억원보다 75.6% 큰 규모

펀드매니저 1인당 운용 규모 현황



주 : 1) 2017년 7월초 기준, 설정원본 기준
2) 전체 55개 자산운용사 중 펀드매니저가 1명인 자산운용사는 제외
3) 노랑색 막대그래프는 운용자산 규모가 10조원 이상에 해당하는 자산운용사를 의미
자료: 금융투자협회

공모펀드 운용 규모에 따른 펀드매니저 현황



주 : 2017년 7월초 기준, 설정원본 기준
자료: 금융투자협회

— 공모펀드 수탁고가 10조원 이상인 자산운용사의 평균 펀드매니저 수 및 1인당 운용 펀드 수는 각각 31명, 9개로 공모펀드 수탁고 규모가 클수록 펀드매니저 1인당 운용 펀드 수가 많은 것으로 집계

- 공모펀드 수탁고 10조원 이상인 자산운용사의 평균 펀드매니저 수는 31명으로 전체 자산운용사 평균 11명보다 약 2배 정도 많으며 펀드매니저 1인당 운용 펀드 수는 9개로 전체 자산운용사 평균 6개보다 0.5배 많음

— 즉, 공모 펀드시장에서 자산운용사의 수탁고 규모가 클수록 펀드매니저 1인당 운용 펀드 수와 펀드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보임

□ **올해 상반기 성과보수형 공모펀드의 도입과 더불어 재간접펀드를 통해 투자상품이 다양해짐에 따라 향후 공모 펀드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펀드매니저의 역량 및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판단**

— 최근 성과보수 공모펀드 출시가 잇따르고 있으며, 대부분 기본 운용보수를 기존 펀드 대비 대폭 낮추는 대신 초과 수익이 발생한 경우에만 추가 보수를 받는 형태로 구성

- 성과보수 공모펀드와 관련하여 금융위원회는 지난 5월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개정하였으며, 행정지도를 통해 자산운용사가 시딩(seeding)투자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신규 공모펀드는 원칙적으로 성과연계형으로 설정하도록 함[4)]
- 지난 6월초 출시 이후 최근까지 10개의 성과보수 공모펀드가 운용 중에 있으며 수익률 2~4% 초과시 초과 수익의 10~20%의 성과보수가 책정되어 있으며 운용보수는 없거나 0.07~0.2% 수준으로 설정[5)]

— 한편 사모투자 공모 재간접펀드 및 실물자산 투자에 특화된 공모 재간접펀드 도입 등 공모펀드의 투자상품이 다양화되는 추세

- 개인투자자도 사모펀드에 간접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사모펀드에 투자하는 공모 재간접펀드를 도입하였으며, 부동산 및 SOC 등 실물자산 투자에 특화된 공모 재간접펀드 도입하여 공모 펀드시장의 활성화를 도모

— 지난 몇 년간 다소 침체되었던 공모 펀드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펀드 수익률이 가장 중요한 요소인바 향후 펀드매니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진 시점이라 사료

선임연구원 박신애

4) 금융위원회, 2017.5.2.,「초대형 투자은행 육성방안」및「공모펀드 시장 활성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 개정, 보도자료.

5) 세계일보, 2017.7.25, "수익 내면 수수료" 성과보수형 펀드, 아직 걸음마.